

다산포럼

피케티 열풍과 ‘이론’의 빈곤



김 동 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피케티 열풍이 뜨겁다. 누진세, 부의 세습 금지, 사교육비 경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그의 목소리가 큰 공감을 일으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마이클 샌델 신드롬이 재연된 것 같다. 재계가 충동원되어 피케티 열풍을 차단하기 위해 세미 나치에 의한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피케티는 고국인 프랑스에서 이 정도의 열광을 받지는 못했고, 샌델 역시 미국에서는 수많은 철학자 중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

사실 대안으로만 보면 피케티의 주장이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에 한국의 사례는 거의 포함하지 않았고, 한국의 사정은 한국 경제학자들이 더 잘 안다.

김낙년 교수 등은 이미 한국도 상위 10%가 부의 45%를 차지하는 심각한 불평등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경

제전문가들도 한국의 심각한 부의 집중, 분배구조 약화에 대해 비판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국내 연구자들의 비판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다. 외국 학자가 같은 주장을 하니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한국 경제학자들이 그 정도의 국제 비교나 이론적 전략을 통해서 그의 수준에 필적하는 체계화된 분석과 대안을 내놓지 못한 점이 큰 이유일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이들보다 애초부터 능력이 모자라고 공부 부족했을까? 현재 인구 대비 미국 유학 경제학자 수는 아마 한국이 세계 최고일 것이다. 세계 어떤 나라든 한국만큼 수도권이나 대학이 미국 학위를 받은 경제학자나 사회과학자로 일색화된 나라는 없다.

그런데 한국 경제학자들은 한국경제를 연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고, 제도권 학계에서 비판적 경제학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즉 한국에서는 성장주의나 신자유주의와 거리를 두면서 분배와 불평등 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학계에 아예 진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나 기업의 연구비 지원은 물론 받을 수 없으며, 그들이 피케티처럼 지난 세기 경제사 자료를 축적하고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민간 연구소나 재단 하나 없

다. 피케티와 같은 입장을 갖는 젊은 사회과학자들은 오늘날 이 대학 저 대학 전전 하면서 강의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바쁜 대학의 주변인들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피케티와 같은 주장이 공론장에 나올 수 없다. 한국에서 재벌 지배구조를 비판하는 사람은 학계 아니 국가의 '적'으로 지목된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대안을 오직 외국 학자의 목소리에서 찾게 되었다.

조선 후기의 문인 계곡 장유(張維)는 “중국의 학술은 다양하다. 정학(正學, 유학(儒家)의 학문)이 있는가 하면 선편학(鮮學, 불가(佛家)의 학문)과 단학(丹學, 도가(道家)의 학문)이 있고, 정주(程朱, 정자(程子)와 주자(朱子))를 배우는가 하면 옥씨(陸氏, 상산(象山)) 유구원(陸九淵))를 배우기도 하는 등 학문의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식 무식을 막론하고 책을 끼고 다니며 글을 읽는 자들을 보면 모두가 정주(程朱)만을 정송할 뿐 다른 학문에 종사하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하였다. (중략) 중국에는 학자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학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일갈한 적이 있다.

지금도 과연 다르냐? 국가에는 오직 하나의 입장만 있어야 한다고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겠다는 나라에서 무슨

이론, 정책 논의가 가능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전권을 행사하는 사학에서 교수는 그냥 종업원에 불과하다. 주류에 비판적인 소신을 가진 사람을 이단시 하는 나라에서 다양한 이론과 정책대안이 꽃 피울 수 있을까?

이미 IMF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빨리 대안을 찾아야 할 의제, 즉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건전재정,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정책 등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공론의장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여당은 70년대식의 성장론에 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고, 야당은 대안담론을 키울 생각도, 그것을 담을 그릇의 역할도 포기하고 있다.

과연 신자유주의가 신흥종교가 된 지금의 한국이 조성을 패망으로 이끈 주자학 교조주의 확립주의와 뭐가 다른가? 사상과 정책의 백기명령을 질식시키는 냉전식의 흑백논리, 반대파를 암살하는 이론 사상의 일색화, 전체주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사회는 지적·문화적 후진국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적 후진성은 곧 정치와 정책의 후진성으로 곧바로 연결된다.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는 '안보'와 '성장' 외에 모든 비판 담론을 질식시키는 '이론'의 지배질서가 만들어낸 것이다.

양동욱의 S스토리



양 동 욱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혹시 버스나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에서 유독 어떤 이성에게 매우 끌리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유는 그 이성이 페로몬이라는 생물학적 성분을 강하게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페로몬은 이성으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성적 매력을 느끼게 하고, 강하게 끌리게 하는 결정적인 성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유혹하고 싶으세요? 이 문구는 페로몬 향수 광고로, 페로몬 향수를 뿌리면 그 냄새를 인지한 이성이 마치 마법에 끌리듯 당신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페로몬(pheromone)은 무엇이며 이성을 유혹하는 효과가 있는 것일까? 호르몬이 동물의 몸의 내부에서 만들어져 그 내부에서 작용한다면, 페로몬은 몸의 내부에서 만들어져 외부로 분비한다. 동물이 뿜어내는 소량의 페로몬 화학성분은 공기를 통해 다른 동물의 감각 수용기에 전

익숙한 체취의 끌림

달릴 때 그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외분비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페로몬은 같은 종의 다른 동물에게 여러 가지 행동이나 발달상의 변화를 일으킨다. 예로, 개미는 먹이를 발견하면 항문에 있는 분비선에서 페로몬을 분비하여 집으로 돌아오고 동료 개미들은 이 페로몬의 냄새로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가고, 누에나방의 암컷은 고치에서 나오자마자 꼬리 끝에서 페로몬을 분비하며 수컷은 암컷에게 접근하여 교미를 시도한다. 이 물질은 극소량일지라도 몇 킬로미터 밖의 수컷들을 단번에 불러들일 만큼 유혹적이지만, 다른 곤충의 수컷은 유인하지 못한다. 여왕벌은 페로몬을 분비하여 알벌의 생식기 발육을 억제하며 혼인 비행 동안 수벌이 따라와 수정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성적 유혹은 포유류에서도 볼 수 있는데, 많은 포유류가 발정기에 특정한 향기를 뿜어내 수컷을 유인한다. 예로, 고양이나 개의 수컷은 발정기 암컷의 생식기에서 분비된 코플린이라는 페로몬의 냄새를 맡고 교미를 시도한다.

인간이 아닌 다른 종에서는 페로몬이 종족보존과 관련된 성적 유혹물질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직업보행과 함께 후각이 퇴화하고 가임기 외에 여성의 생리주기 어느 시기에나 성교가 가능한 인간에게 성적 유혹물질로서 페로몬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페로몬에 반응하는 해부학적 부위는 후각기관에 속하는 서버기관(動鼻器)인데, 사람은 입, 겨드랑이, 머리카락, 피부, 생식기, 소변, 땀 등에 일정한 분비물이 들어있어 개인마다 독특한 체취를 풍긴다. 이러한 체취 속 페로몬이 이성을 성적으로 자극하는지, 더 나아가 성적 유혹을 느끼게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냄새만으로 자신과 어울리는 짝을 찾을 수 있을까?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몇 쌍의 남녀에게 향균 처리된 티셔츠를 나눠준 후 티셔츠에 그 사람만의 체취가 듬뿍 스며들도록 이를 동안 향수나 비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생활하도록 했다. 그 후 티셔츠를 회수해서 밀봉된 유리병에 담고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 티셔츠와 무작위로 섞었다. 그런 다음 티셔츠를 입었던 참가자를 실험실로 불러 밀봉된 유리병 속 티셔츠 냄새를 맡게 하고 그 냄새를 평가하도록 했다.

‘한여름에 날 것 같은 시초 냄새’, ‘뱀바닥 먼지 냄새’처럼 부정적인 반응은 우습게도 자신이 입었던 티셔츠 냄새에 대한 반응이었다. 사람마다 특유한 체취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면역유전자가 가뭇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면역유전자가 100% 일치하는 자신의 냄새에는 대체로 거부반응이 나타난다고 한다. 반면, 면역유전자가 절반가량 일치한 남 녀는 서로의 냄새를 ‘옛날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땀 흘리면 낫던 냄새, 그리움이나 추억 같은, ‘약간 부드러움’이라고 평가했다.

냄새의 좋고 나쁨을 떠나 성적으로 끌리는 혹은 이성을 유혹하는 냄새는 어떤 것일까? ‘냄새를 맡으면 말을수록 건강해 보이는 남자가 떠올라요’, ‘운동을 좋아하고 날씬하고 세련된 여성의 냄새’, ‘자갑지만 남자다운 느낌’의 반응은 면역유전자가 거의 일치하지 않은 참가자들 간의 평가였다. 즉 자신과 면역유전자가 비슷할수록 우정이나 동리의식과 같은 친밀감을 느끼고 다를수록 성적으로 끌리는 느낌을 표현했다. 이 실험의 결과만 놓고 보면 자신과 면역유전자가 다른 사람의 체취는 이성에게 성적 자극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만약 그 냄새를 풍기는 이성을 직접 만났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냄새를 통해 호감을 느꼈던 사람에게 여전히 호감을 느끼는가? 동물이 분비하는 페로몬을 추출한 성분으로 향수를 만들고, 그 값비싼 페로몬 향수를 뿌리면 동물처럼 이성을 유인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인간은 동물처럼 종족보존에 맞춰진 성을 추구하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상대를 성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향수 냄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익숙한, 편안한, 고향같은 체취이며, 그 익숙한 체취는 서로를 알아가고 알아가는 시간만큼 후각 기억에 새겨진 것이다.

社 說

광주 군시설 이전사업 손놓고 있을 건가

광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군(軍)시설 이전 사업들이 민선 6기 들어 줄줄이 지연·중단되고 있다. 대규모 도심공공 확대로 광주 도시발전을 이끌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협상의 주체인 광주시와 국방부 등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사업 포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최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민선 5기 때부터 추진 중인 광주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사업은 광산구 평동 군 훈련장과 광산구 도호·신촌동 일원 군 공방, 북구 31사단,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서구 옛 국군통합병원 및 기무부대 부지 교환 등 5곳이다.

하지만 민선 6기 들어 계획대로 추진 중인 사업은 국방부 소유인 옛 국군통합병원과 기무부대 등의 부지와 광주·옛 국군통합병원 및 기무부대 부지 교환 등 5곳이다.

하지만 민선 6기 들어 계획대로 추진 중인 사업은 국방부 소유인 옛 국군통합병원과 기무부대 등의 부지와 광주·옛 국군통합병원 및 기무부대 부지 교환하기로 한 사업과 군 공방 이전 뿐이라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 핵심사업으로 추진됐던 북구 31사단 이전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군시설 이전사업이 알맹이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윤익 시합 추진의 주체였던 김운태 전 시장이 재선 실패로 물러나고,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추진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협상 주체가 바뀌었다 하여 광주 도시발전의 핵심이 될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군시설 이전 없이는 광주발전의 마스터플랜도 없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또 이 사업은 애당초 군시설의 이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공감대 속에 추진되어왔다는 것을 잊어서 안 된다.

광주시는 하루빨리 국방부와 협상을 나서야 한다. 국방부도 이미 이전에 대한 원칙에 합의한 만큼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목포대교 투신자살 더 이상 방치 안 된다

목포대교가 ‘자살대교’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 6월 29일 임시 개통된 이후 현재까지 투신으로 11명 사망, 1명 실종 등 자살자만 12명에 달한다.

지난 18일 오전 8시30분께 택시를 타고 목포대교를 지나던 라모(24)씨가 택시시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투신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 자살자들은 교량 길가에 차량을 세워 놓고 1.3m 가량의 난간을 넘어 바다로 뛰어거나 대교 입구에서 걸어와 투신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투신을 막기 위한 관계당국의 노력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19대의 CCTV는 자살 예방용이 아닌 교통사고 등에 대비한 관료용으로 설치돼 있을 뿐이다. 감시원 순찰도 하루 2차례 차량을 이용한 ‘주마감신’이 전부다.

또한 당국이 대교 양쪽 입구에 보행자 출입을 통제하는 검문소도 운영하

지 않아 자살을 막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한국시설물안전공단과 목포시, 해경 등 책임이나 예방 대책에 대해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 주체마저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책이 결집 수밖에 없으니 투신 자살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관계당국은 협의를 통해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자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CCTV의 폭넓은 활용과 ‘SOS 생명의 전화’ 설치, 감시원 순찰 강화 및 검문소 운영 등 효율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서울의 마포와 한강·원호대교 등에는 지난 2011년 투신하려는 사람들의 심정을 들어주고 설득하는 ‘SOS 생명의 전화’가 설치되면서 2013년 10월까지 952명이 자살 기도를 포기했다는 통계도 있다. 또 난간을 넘지 못하도록 철망을 설치할 필요도 있다. 이제 더 이상 면피성 대책은 안 된다.

無 等 鼓

커피마니아인 바흐는 매일 밤 커피 하우스에 묻혀 연주를 즐기며 ‘커피 칸타타’를 작곡했다. 이 곡의 작사자인 시인 피칸다는 “천번의 키스보다 황홀하고 마스카트 포도주보다 달콤하다”고 극찬할 정도로 커피 애호가였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커피광은 프랑스 소설가 발자크다. 발자크는 오직 결혼을 위해 작품을 썼는데 결국 커피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그는 33살에 편지를 하면서 알게 된 유부녀 한스가 폴란드 백작부인에게 반해 청혼을 했다. 백작부인은 남편이 죽고 복한 사실이 드러나 하기로 물러 약속했다.

백작부인과 결혼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발자크는 하루 15시간 이상씩 글을 썼다. 잠을 쫓기 위해 하루 평균 50잔의 커피를 마셨고 평생 900편의 작품을 완성했다.

18년에 걸친 구애 끝에 51세에 한스카 부인과 결혼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카페인 과다복용으로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죽고 말았다. 프랑스의 한 통계학자는 발자크가 평생 마신 커피를 5만 잔으로 추정했다.

고종 황제는 반대로 커피 때문에 목

숨을 구했다. 커피 애호가인 고종은 1898년 9월 10일 여느때와 같이 식사를 마친 후 황태자(훗날 순종)와 숙주간(궁중 주방)에서 내은 커피를 마셨다. 몇 모금 마시던 고종은 평소와 향이 다르다고 느껴 곧바로 뱉어냈다. 반면 커피를 마신 황태자는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범인은 학부협관(교육부 차관)까지 지낸 김홍룡이었다. 그는 아관파천 때 고종과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통역을 맡아 고종의 총애를 받은 인물이다. 하지만 독립협회를 탄압하고 러시아와의 통상에서 거액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 하기로 물러 약속했다.

백작부인과 결혼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발자크는 하루 15시간 이상씩 글을 썼다. 잠을 쫓기 위해 하루 평균 50잔의 커피를 마셨고 평생 900편의 작품을 완성했다.

18년에 걸친 구애 끝에 51세에 한스카 부인과 결혼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카페인 과다복용으로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죽고 말았다. 프랑스의 한 통계학자는 발자크가 평생 마신 커피를 5만 잔으로 추정했다.

고종 황제는 반대로 커피 때문에 목

밥보다 커피

신안 흑산도로 유배되자 양식을 품고 숙주간 사람을 꺾어 커피에 아편을 타 암살을 시도했다. 향으로 커피와 아편을 구별해 낸 고종은 극적으로 목숨을 구했고 김홍룡은 처형됐다.

세월이 흘러 커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보다 더 많이 먹는 음식이 됐다. 질 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주 먹는 음식 1위는 커피였다. 주당 섭취 횟수에서 커피는 12.3회로 쌀밥 7.0회를 앞질렀다. ‘밥보다는 산다’는 말 대신 이제 ‘커피심으로 산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기 고



안 미 영
광주시립도서관 관리과장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글거리던 태양도 어느새 기세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깊어가는 밤에 들려오는 풀벌레의 노랫소리는 고즈넉한 가을의 정취를 한층 더해줍니다.

가을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넉넉해지는 이유는 아마도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뜻한 봄날 뿌려진 씨앗이 움터서 뜨거운 태양과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풍성한 열매로 영글어가는 자연의 섭리를 볼 때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도서관 문화마당에 놀러오세요

우리네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인지적·정의적인 성장을 거쳐 어른이 되며, 자아의 실현과 내면의 성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삽니다. 꿈을 향한 인생의 여정에서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책은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친구이자,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는 스승이며, 미지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각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비결로 단연 독서를 꼽습니다. 이렇듯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은 오직 주식투자만으로 세계적인 부와 명예를 얻은 인물로 유명합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의 성공을 단순한 요행이 아닌, 끊임없는 독서와 자기계발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날 한사람이 편지를 썼습니다. “워렌 버핏씨, 저는 당신

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끈 당신의 선견지명을 존경합니다. 저에게 줄 수 있는 지혜가 단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편지에 대해 버핏은 다음과 같이 친필편지를 보냅니다. ‘Read, read, read.(읽고, 읽고, 또 읽으세요.)’ 이처럼 독서는 종종 기적과도 같은 성취를 이루어 냅니다.

우리는 모든 광주시민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책을 통해 행복과 성장의 기회를 얻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서관 문화마당’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도서관 문화마당은 ‘책 읽는 벤치 in 책나눔 광주’라는 주제로 오는 27일 토요일 상무시민공원에서 개최됩니다. 행사 운영을 위해 광주지회 도서관(공공·학교·대학)과 민간독서단체, 출판사 등 66개 기관이 모여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시민들이 각자 소장하고 있는 책을 서로 교환하고 기증하여 지식과 사랑을 나누는 ‘책 나눔 장터’, 동화 ‘헨젤과 그레텔’의 주인공이 되어 보는 ‘동화 체험 존’, 온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퀴즈를 풀며보는 ‘도전! 독서 골든 벨’ 등이 운영됩니다. 또한 40여 개의 독서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미니 북 만들기, 펄리브 등 책과 관련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합창단, 매직 버블 소등의 문화공연을 통해 참여자들의 오감을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이 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뜻 깊고 행복한 독서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신나는 축제가 곧 시작됩니다. 풍요로운 가을날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과 함께 ‘도서관 문화마당’에 오셔서 기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독서 행사를 즐기시는 동안 여러분 마중 한전에 독서의 중요성이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p>光州日報 The Kwangju Ilbo</p> <p>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鎭</p>	
<p>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p>	
<p>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p>	
<p>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p> <p>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p> <p>문 화 생 활 부 2200-661 (광고매케팅)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p> <p>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p> <p>(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p> <p>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 그 램 팀 2200-555 (F A X 02-773-9335)</p> <p>(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p>	<p>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p> <p>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p> <p>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p> <p>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p> <p>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p>
<p>※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